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월 2일
제1877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0-11)



〈동방박사들의 경배〉, 프라 안젤리코

주님 공현 대축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60,1-6 |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화답송 시편 72(71)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서 에페 3,2.3-5-6 |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음 마태 2,1-12 |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기억의 해 Remember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 성 정 바오로 성당 공동체는 '친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을 신뢰하며 출범한 지 35주년 되는 해였으며, 천주교 알링턴 교구 본당으로 승격된 지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 은혜로운 해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 3,11)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직 희망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기도하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함께 해 왔습니다.

이제 25주년을 지내고 새롭게 50주년을 준비하며 세계주교시노드의 정신인 “친교, 참여, 사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해야 할 바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세상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 정 바오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알링턴교구는 2024년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며, 3개년 계획으로 그 첫 해 ‘기억하고’ Remember, 둘째 해 ‘기뻐하고’ Rejoice, 셋째 해 ‘새롭게 나아가는’ Renew 교구 공동체로 황금희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공동체도 그 첫 해인 2022년의 사목목표를 “기억의 해-Remember”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정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가톨릭 생활의 원천이자 최고의 중심인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친교, 참여, 사명’을 통해 역사 안에서 하느님 사업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이기를 기도합니다.

1 하느님 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낯선 이국 땅에서 신앙공동체를 건설하여 35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실안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는 표현은 교회의 삶에 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쩌면 깨닫지도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세계주교시노드 연설문).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움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2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에페 1,5)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는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시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는 큰 은총이며 영광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기억과 행함은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지닌 본연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 지속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6)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성찬례를 특징짓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2년 “Remember”의 해를 지내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고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찬은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함으로써 교회가 일치될 이루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빵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2022년에 우리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의 지나온 길을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 기호가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친교와 사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용기를 지니고 함께 걸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2022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에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 세계주교시노드 기도문 -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1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월 2일(일) 오전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성경학교 동계 연수회

- 일시 : 1월 9일(일) 오후 2시 - 5시(중 모임으로 변경)
- 대상 : 1, 2학년 전원
- 강사 : 홍jem마 수녀님(바오로딸)

3 단체장 회의

- 일시 : 1월 9일(일) 오전 11:40(B-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월 9일(일) 오후 1시 (B-3,4)

5 2022년 바오로 딸 성경학교 등록(1, 2, 3학년)

- 등록 기간 : 1월 16일(일)까지
- 등록 대상 : 1, 2, 3학년 우편통신, 이러닝 과정
- 등록 방법 : 미사 전후 친교실 · 사무실
- 문의 : 교육부 (703) 850-2968

6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

- 2월부터 파티마 세계 사도직 첫 토요 신심미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봉헌됩니다.
- 파티마 기도 모임은 9시에 있습니다. (1월 파티마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은 쉽니다.)

7 2021년 교무금 납부 안내

- 2021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 우편을 받지 못한 가정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에 주소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 달력 배부

- 2022년도 본당 달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미사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 주일학교 개학 연기

- 주일학교 개학이 1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0 모임시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모임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선택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모임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2022년 1월 기도 지향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새해에는 마음을 내어 정진하면
반드시 봄은 찾아 오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장애가 있겠지만
이제는 희망의 길이 열린다고 믿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 신부, 수녀, 회장단 일동 -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Year Two (2022년 11.20 시작)

“Rejoice” : 활력이 넘치는 교구의 현재 모습에 기뻐합니다.

Year Three (2023년 11.26 시작)

“Renew” : 앞으로의 우리 신앙을 새롭게 다지고 더욱 굳건히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감사드립니다!

5년간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신 권선안 이나시오 형제님과 그동안 전례부회장을 맡아주신 이원석 요한 형제님, 제대회장 황 줄리아 자매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신 형제님들과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신임 제대회장 : 장 에디파
- ▶ 전례부회장 대리 : 이준호 요셉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2월 26일(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 |
|--------------------|---------------------|
| 주일헌금 | \$ 6,892.00 |
| 성탄 대축일 미사 헌금 | \$ 11,476.00 |
| 성탄 구유 예물 | \$ 10,754.00 |
| 교무금 | \$ 24,300.00 |
| 교무금(신용카드) | \$ 8,510.00 |
|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 1,930.00 |
| 온라인 봉헌 | \$ 6,500.00 |
| 합계 | \$ 70,362.00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1월 6일(목) 오후 5:00-6:00
- 1월 7일(금) 저녁 8:00-9:00
- 1월 9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1)
- 안셀모, 이시도로 성인

전입 신자 환영

본당으로 전입하신 분들을 파악한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미사 전에 **주임신부와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때에는 인사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본당 수칙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친교를 나눌 때
약간의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 | | | |
|-----------|---|------------|--|
| 주일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 |
| |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 7:30 PM | |
| 월, 목, 토 | 화, 금 | 수 | |
| • 6:00 AM | • 7:30 PM | • 11:00 AM | |